



국가보안법은 '해리포터' 를 낳을 수 없어요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단 사람들



밤송이처럼 솟아오른 짧은 머리와 아직도 노란기가 가지지 않은 헬썩한 얼굴 그리고 푸른 핏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마른 손이 2004년 12월에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단식농성한 분들을 필자가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마주친 것들이었다. 한순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가슴 한편에서 울컥하는 묘한 떨림이 일었다.

내가 그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이미 없어졌어야 할 법에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참여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다.

일천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보법 폐지 투쟁에 함께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양한 시선과 경험으로 국보법폐지 투쟁을 통해 한국사회를 말하고 있었다. 박석운(50)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타협이 어떻게 경계 지워져야 하는지'를, 지금중(44)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상상력의 통제 장치가 우리 문화를 얼마나 빈약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최민희(46) 민주언론연합 사무총장은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장수경(38) 반미여성회 사무국장은 '국보법폐지 투쟁에서 얻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말을 해주었다.

이 글을 마무리 할 즈음인 지난 달 24일, 대부분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은 한 달 여간의 휴식을 갖고 다시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싸움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수경 실천단장은 지난 싸움에서는 '극우와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싸움이 미진했다면서 그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 싸움을 하겠다고 했다.

200명의 실천단이 조직되어 다시 여의도에서는 천막농성이 시작되었고 전국에서는 릴레이 촛불시위와 국가 폭력의 갖은 해악과 구체적 실태를 국민들과 나눌 '전국버스투어'가 만들어졌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싸움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서 배태된 온갖 것들을 청산하고 국보법 폐지를 통해 '수구보수기득권층'의 힘을 약화시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국보법 폐지는 타협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단식하고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이빠지고 귀여워졌다고 그래요.(웃음) 26일 동안 단식하는데 집회 사회도 보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했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펄펄 날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단식하는 줄도 몰랐대요.(웃음)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고 3일 만에 링거주사 맞고 나오려고 했는데 녹색병원 원장이 병색이 완연하다고 불들드라구. 그러더니 투쟁할 때는 안 터졌던 입술이 막 터지더라구요. 1천 명의 열력이 모여서 투쟁할 때는 그 에너지로 힘든지도 몰랐나 봅니다.

참 좋았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천여 명이 함께 단식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맨 정신으로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지난해 12월 1일에 기자회견 하면서 56명이 삭발식을 했어요. 왜 56명이나 하면 국보법이 제정된 지 56년이 됐거든. 민주주의에 대한 치욕이지. 칠순의 노투사도 삭발하고 여성들도 삭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기필코 끝장내보자 하고 단식도 시작했어요. 대중 단식단 3백 명도 조직했는데 왜 300명이었냐면 국회의원이 299명이었거든.

6일 날 단식을 한다니까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에서

연내 처리 유보를 발표한 거야.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성영 의원이 색깔 공세를 한거야. 그 친구가 색깔 공세를 해준 게 어떤 의미에서는 통보를 찬 거거든. 극적인 뒤집기를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색깔공세를 하고 조중동이 날뛰면 먹히는데 이번에는 뒤집기를 해서 폐지 지지여론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내 처리 분위기가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 뒤로 1주일 만에



단식농성 과정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

단식하는 사람이 560명이나 되었고 2주가 지나면서는 1,300명이 참가하게 된 거예요. 50명 들어가는 대형텐트를 문화마당에 쳤는데 처음에는 다섯 개에서 시작했고 나중에는 19개나 되었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식하는데 물만 마시면 되니까 돈 들게 뭐 있을까 했는데 텐트 한 동 빌리는데 60~70만원씩 들었어요. 물 값도 하루에 20만 원

씩 드는 거야. 단식할 때 사람들에게 참가비로 2만 원씩 받았거든. 릴레이 단식하는 사람은 만 원씩 걷고 참 놀라운 단식이에요. 자기돈 내놓고 단식까지 한 거니까. 근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난방비만 60~70만원씩 들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니까, 돈 떨어질 만하면 성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예요.

근데 국보법 폐지를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이제 마지막 기적만 남겨 놓았어요. 우리당 내부의 일부 중진들이 (한나라당과 타협하는) 개혁에 역행하는 일만 안 했어도 타결이 되었을 텐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한번 더 타협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상생을 하면 돼요.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토론도 거부하고 상정도 거부하는데 거기에서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상생담론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까지 국보법폐지투쟁은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투쟁을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릴레이 촛불시위를 하고 실천단을 200명 정도 모아 홍보선전하고 매체도 만들 거예요. 2월 20일 쯤에는 대규모의 집회를 구상하고 있어요. 국보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과거사 문제, 사립학교법 등 다 모아서 함께 갈 겁니다.

**상상력 통제법은 '해리포터'를 낳을 수 없어요
- 지금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단식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5일 굶으면 귀신이 보이고 단식 기간에 마음먹은 좋은 생각들은 다 이루어진다더라.(웃음) 저는 귀신은 못보고 15일 단식하는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굶으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6~7일은 잠도 안 오고 굉장히 힘들드라구요. 정신도 몽롱하고. 근데 일주일이나 지나니까 술도 끊죠, 담배도 끊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이 빠지면서 '마음의 독'도

빠졌어요.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문화적 차원에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검열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쓸 때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하는 거죠. 그것은 인류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한국의 문화 발전에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들이 해리포터와 같은 문학이나 영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현대는 지식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데 상상력 통제법, 창의력 억제법이 존재하는 한 경제적 발전도 없겠죠.

사람들이 문화를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언론, 관광, 체육, 법, 제도, 학문, 예술 이런 것도 다 문화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원리, 삶의 방식이다 문화라고 할 수 있지요. 환경문제도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화적 태도에 있다고 봐요.

최근에는 '야, 너희들 그런 문제까지 다뤄야 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정몽준 씨가 회장으로 있는 '축구협회'를 개혁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축구협회가 우리 사회와 무관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축구를 시민들의 삶의 질로 봐야 하는지, 관람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우리들은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보법은 극우적 멘탈리티 안에 있는 것인데 요즘처럼 신자유주의 속에서 싹들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운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꽃피는 것이죠.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속에서 극우가 만들어졌듯이요. 극우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극우적 사고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즉자적인 사람들을 움직여 만들어 놓은 것이 극우적인 정서인 것이죠.

극우세력 뿐만 아니라 극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단식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다는 지금중 공동운영위원장

일부 국민들도 참 안타까워요. 프랑스 사람들은 극우가 집권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높은 문화의식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인권적 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곳에서 적응하면서 아직도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에요.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정말 단식하기 싫었어요. 아픈 큰 아이 때문에 단식을 많이 해서, 시민단체 사무처 책임자니까 애초부터 단식하고 농성하는 것을 제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에 걸맞는 국보법 폐지운동,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거나 대국회 압박을 위해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면에는 '국보법만은 연내에 폐지하겠다' 던 우



국보법 폐지는 보수자유주의자들의 과제여야 한다는 최민희 사무총장

리당과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민노당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돌연 우리당이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니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니 이런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사무처 활동가 4인과 함께 단식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국보법 폐지 투쟁이 큰 성과 없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여당 중진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확신이 약했다는 것에서 찾거든요. 과거에 그 분들이 재야운동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제도권에 있다보니까 타협문화에 익숙해지고 표피적인 국민적 여론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분들은 열심히 싸우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의견을 더 존중했어요. 당 의장을 비롯한 여당 중진 3명 정도가 조선일보 모 논설위원 만나는 것을 여러 명이 목격했어요. 국보법 폐지 싸움이 끝나고 이부영 의장이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과 타협한 부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간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국보법 폐지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침예한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의 철학적 인식의 일천함’이라고 봐요.

사실은 국보법 폐지가 개혁진영이나 진보진영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자유주의자들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내의 일부 온건세력이 국보법 폐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보수세력이 없다는 것에서 찾는 거죠.

한나라당 내의 강경파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의제가 정상적으로 가기 힘들어요. 한나라당의 변신이 국보법 폐지뿐만 아니라 개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라당이 보수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주어야 다른 부분이, 이를테면 우리당이 나름대로의 중도 우파든, 중도 좌파든, 아니면 한나라당과 똑같은 보수자유주의 정당이든, 이런 정당 간 정치지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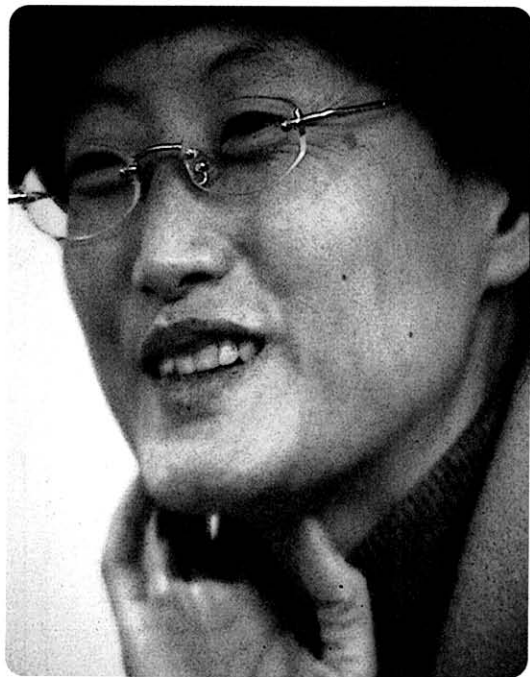
연내 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 장수경 국보법폐지 여성실천단 단장

저희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여의도 역이었어요.

계단이 많았거든요.(웃음) 19일, 20일 지나가니까 배고프다는 생각은 없는데 기운이 없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것을 단식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지하철 시민들에게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려면 여의도 역에서 광화문 역까지 가야 하는데 많이 걸어야 돼요. 그 길을 매일 걸었어요. 여의도 역에서 여의도 공원 숲속 천막농성장까지 가는 길에 포장마차가 짝 있거든요. 거

기서 오뎅을 파는데 단식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게 가장 힘들어했어요. 날이 추우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오뎅과 김치잖아요. 김치의 경우, 주부들이 김장을 하고 바로 왔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게 ‘흰 쌀밥에 김장김치 없어서 먹고 싶다’ 였어요.(웃음)

많은 수가 아기 엄마들이었어요. 저도 8살 아들 병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단식을 했어요. 주안 5공단에 있는 한국특수잉크에 다니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



연대하면서 느낀 따뜻한 감정을 잊기 어렵다는 장수경 단장

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아들도 7시 10분에 어린이집엘 갔어요. 부산, 대구, 진주, 울산 등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도 많았어요. 부부가 함께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추위를 참는 게 힘들었어요. 직권상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침 일찍 한 7시쯤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공관에 갔어요. 호소하려고. 출근할 때까지 추위에 떨면서 피

켓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 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 30초를 위해 3~4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부영 당시 우리당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서 가고……’ 이런 발언했을 때 당사 앞에 가서 철야노숙투쟁을 하기도 했어요. 매일 7시가 되면 촛불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26일 단식하는데 12킬로그램이 빠졌어요. 저는 그래도 보통인 편이에요. 17킬로그램 빠진 분들도 있어요.

정말 고마웠던 분들은 ‘참의료실천단’ 분들이었어요. 간호사들 중심으로 중반부터 결합하여 혈당, 혈압 검사도 해주시고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수액주사도 놓아주고 병원 후송도 맡아 주었어요. 밖에 있을 일이 많으니까 핫팩을 뜨겁게 데워서 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면 의사가 단식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지켜본 ‘참의료실천단’ 책임자 분이 ‘제발 그러지 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 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들의 힘을 뺏는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분이 말씀 하셨을 때 함께 울었어요.

난방이라든지 집회 때마다 앰프를 챙겨주시는 지원단 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농담처럼 그 분들이 ‘차라리 단식하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웃음) 그 분들도 대부분 5킬로그램 이상 빠졌어요. 절박하고 긴박한 투쟁이었으니까 얘기를 많이 안 했어도 활동을 오래 함께하지 않았어도 연대하면서 느껴지는 뜨거움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감정은 잊기가 어려워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힘을 얻었어요.

지난해 12월 31일 해단식과 함께 2005년 떠오르는 첫해를 맞이하면서 국보법 연내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동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어요.

〈글 김순천 / 사진 김정하〉